

사순 제 4 주일

기도서 263면 (A해)

제1독서 : 1사무 16,1b. 6-7
 10-13b
 제2독서 : 에 폐 5,8-14
 복음 : 요 한 9,1-41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보는 사람을, 못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9,39).

강론



세상의 빛

오 현 택 신부

형제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 4주일이며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앙의 신비인 주의 수난과 부활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 2독서에서 우리 모두가 전에는 어두움의 세계에 살았지만 세상의 빛이신 당신을, 믿음을 통하여 알고부터는 빛의 자녀가 됐으므로 어두움의 세계가 아니고 빛의 세계에서 살게 됐고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며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하며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웃과 온 세상을 빛으로 복되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세태는 부정과 부패, 진실보다는 날조된 허위와 교만, 사치와 쾌락, 기만과 폭력, 인권유린과 착취, 온갖 죄악의 어두움이 난무하고 있어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빛의 자녀인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깊이 생각해서 미련하고 바보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 것이며 성령을 가득히 받아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진정한 마음으로 불러 주님을 찬양하고 매사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어두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처참하고 불행한 일생을 살았던 태생 소경의 눈을 치유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 예수님과 의 일치나 행복이 굳센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순교성인들이 물려준 고귀한 이 신앙을 교구설립 50주년의 이 사순절에 성장시키고 증진시키는 희생과 봉사를 통한 사랑 실천에 매진합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요한 9,5). 아멘.

(금암 주임신부)



봄은 왔는데...

계절로 보아 봄인데도, 그 어디를 보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듯이 보인다. 그 하나로, 신문에 큼직하게 찍힌 활자들은 자꾸만 우리 마음을 잔뜩 움츠러들게 한다. - 학원소요 배후조종 우려, 수배자 108명 일제 검거령, 좌경조직 재건 사전봉쇄/형제복지원서 또 살인, 조장 등이 못매 때려, 35명 놀라 탈주/주택조합 위장분양...192억 탈세, 사업승인 관련 시군 공무원 127명도 문책/약사복 단방 차려 면허증 대여·위조, 표본처방 따라 마구 투약/...

어쩌다가 오늘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좌경 용공」 시비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었는가? 복지원 관계의 사고가 벌써 몇번째인가? 복지원은 정녕 무법천지의 성역(聖域)인가? 사회정화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토록 어마어마한 부정과 비리가 활개를 치는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치판도 마찬가지다. 두 야당의원에 대한 재판 시비를 좀 보자. -검찰은 “지도층 인사로서 젊은 학생들의 과격·좌경적 시위를 부추겼다”고 현직 야당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당사자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맞섰다. 그들은 끝내 최후진술을 포기했고, 변호인단도 변론을 포기하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신민당은 「실형 구형은 의회 부정」이라며 “참을만큼 참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민정당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당분간 대화를 유보”하겠다고 한다.

분명히 희망의 봄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 희망을 찾을 것인가? 구멍뚫린 사회윤리는 부정의 악순환을 부르고, 정치판마저 그 제동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데, 이 시대에는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려 들지 않으니 어찌 봄이 오겠는가?

숲정이 산책



□사순 제5주일

50주년 특별강론 및 헌금주일

정신분과위원장 김 진 소 신부

오는 4월 5일 주일에는 이미 「숲정이」에 발표된 것처럼 50주년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교구내 모든 본당에서 일제히 특별강론이 있게 된다. 올해는 우리 교구가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로 설정된지 50주년이 되는 바로 그 해이다. 그리고 4월 13일은 교황청에서 이 교구를 자치교구로 선포한 기념일이다.

이 날을 앞두고 9만 신도가 자리는 다르지만 다 함께 50주년의 참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시기 적절한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50주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50주년 의의가 무엇이며, 왜 50주년을 지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육이 있어 왔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9만의 신도가 한자리에서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사실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나신다는 속담처럼 우리 교구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나 느낌없이 주권없이 끌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갖추어야 할 것은 신앙의 조상들과 그분들이 살으셨던 역사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는 일이다.

우리 마음에 조상과 역사에 대한 가까운 정이 없이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신앙이 내 삶의 전부라고 증언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훌륭한 조상을 존경하며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 보존하려는 것은 조상들의 은덕에 기대어 살려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에 후손된 긍지를 가지고 각성하며 살기 위한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면 무엇하랴, 꿩어야 보배가 아닌가. 신앙은 생각이니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천이다. 그게 없으면 우상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사랑하며 감사한다. 따라서 50주년 기념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자.

강 론 : 교중미사 중 : 자치교구설정-신부님
교중미사 직후 : 봉헌정신(순교)-평신도
헌 금 : 50주년 기념헌금

□ 노동자의 후보 성요셉성월

「교회와 노동」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노동의 고통(창세기 3,17)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원죄 이전에도 인간은 노동활동을 했음(창세기 2,15)을 알 수 있으니, 실로 노동의 역사는 길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베살 후 3,6-)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노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베네딕도 수도회는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를 기본 정신으로 살아 노동을 기도만큼이나 중요시했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필요한 생활도구를 만들어 쓰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얻어낸다. 그러나 노동은 단순한 기술적 차원의 그것만은 아니다. 노동은 인간 본성의 표현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게 한다. 그리고 노동은 인간존존만을 위해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인간존재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부과된 것이다. 노동은, 사물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새로운 노동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과 노동의 분리로 노동자들의 설 땅을 빼앗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는, 노동자의 인격의 표현인 생산물을 빼앗아 갔다. 사용자가 정하는 작업목표와 방법에 따르는 노동자에게서 노동의 자율성

은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대량생산의 발달로 작업은 세분화·단순화되고, 기계에 예속되어 타율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소외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경영조직의 대규모화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인격적 만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보장이 빈약한 한국적 현실은 많은 노동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주와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비인간화, 기술사회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교회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 직무확대, 자주관리, 작업집단 등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의미가 사용주나 노동자에게 받아들여질 때, 노동자는 보다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노동의 어두운 모습들을 불식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은 참으로 가치있고 신성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노동을 통하여 자연에 투영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게 됨으로, 노동에 의해서만 인간의 존재는 규정된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전주교구 지도신부)

신전 커피숍
(이도백화점 옆)

전화 2-3962

동양석재

전화 6-6800

이리 신동빌라 101호

김 협 식(바오로)

전화 3-7818

군산가방

- 각종가방 • 혼수합가방
 - 지갑 여행구 • 모든 학생 책가방 • 각종pr 마춤가방
- 교구님들의 이용바랍니다
엄미카엘 · 진요안나
군산시 평화동 전북은행앞
(2-5872)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김종환치과의원

신라당 ○
팔달로 ← → 오거리
○ 주택은행
↑ 1대화병원
○ 조흥은행
김종환치과의원

원장 김 종 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 옆 신라당 건너편

교 구 소 식

1. 50주년 사목교서 평신도 지도자 연수 : 29일(오늘) 오후 2시30분
장소-전주 가톨릭센터, 참가대상-각 본당 사목회장·신교부장·교육부장
2. 치명자산 9일기도 : 4월6일부터 새벽 5시30분 미사(주일 제외), 주최-전동천주교회
3.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4월 2일 오전 10시(목), 장소-덕진천주교회
4. 성모기사회 1일피정 : 4월 4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준비물-미사도구·묵주·기도서·도시락, 강사-김영일 신부·김치삼 신부
5. 제 9기 혼인강좌 : 미혼 남·녀를 위한 결혼전 교육
일시-4월 20일(월)~4월 24일(금), 매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접수-4월 14일(화)까지 교육국(5-0041)
수강료-3천원, 내용-행복한 가정(남편과 아내의 역할), 가정의학, 부부생활, 혼인의 신비(목적·전례), 아동심리, 생명의 신비, 빌딩스 점액관찰법, 혼인의 윤리, 가정공동체, 인공유산과 여자의 결정권
6. 한국 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안내 : 일시-4월 12일 오후 2시~5시
장소-서울 분회 신학원(92-1946·5145), 대상-고교생 이상(남)
준비물-성서, 필기구, 회비(1,000원)
7. 전국 올뜨레야 참가신청 : 본당 올뜨레야 회장은 참가희망자 수를 3월 30일까지 보고 바람

10만인 성지순례

1 코스 : 순정이→치명자산			2 코스 : 여산→천호		
일	요일	담 당 신 부	담 당 신 부	담 당 신 부	담 당 신 부
29	일	김 병 운 신부	유	중	환 신부
4월 4일	토	김 기 수 신부			
5	일	김 영 신 신부			

✿ 잡 간 !

☆ 매일 성체조배를-

“1987년을 성체와 교회의 해로 정하고 가정공동체의 성화를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의 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 주교단의 교서 첫머리였다.

성체와 교회의 해, 이를 위한 신심운동으로 매일 성체조배를 실시하고 있는 본당이 있다. 전주 중앙성당(주임: 성민호 신부)은 지하실 경당에 성체를 헌시하고 매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경당을 개방, 성체조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체회원을 모집, 1주간동안 본인이 희망하는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이를 조절, 매일, 매시간 지속적으로 성체조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1주에 1시간씩 성체를 지키며 조배를 함으로써 성체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고 이를 계기로 사순절의 거룩한 시기를 보다 경건하고 의미있게 보내고 있다.

중앙본당은 이 성체조배 운동에 참여할 회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본당 신자는 물론 타 본당 신자들도 회원으로 가입, 성체조배 운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성체와 교회의 해를 맞이하여 신앙생활의 생명수이며 교회발전의 원동력인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을 굳건히 하기 위한 이 운동에 많은 참여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성체와 교회의 해-하지만 솔직히 성체에 대한 신심의 무관심속에 참으로 좋은 성체 신심 운동이 아닌가 한다.

요십이 (712) 김병오



베소라성서 강의
하늘나라의 쟁탈전
-절대적인 신뢰와 노력-
(마태 11:12-15, 루카 16:16)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사 : 김정원 신부
회비 : 매주 1,500원

□ 1분 명상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 13

명동피부과의원

전북 의료보험조합 지정

김 안 과 의 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 호 열 · 전 은 주(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홈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현대미용학원

- 자격증 ○ 해외이민
- 유학코스 ○ 연구반
- 피부미용

☎ 4-9206
코아백화점 옆
김 금 순(테레사)

2) 재미, 근면, 열정
3) 꽃밭, 인간에게 사랑을 제공 剩也
(4) 숲 정 이

4.1P 무한정 캐리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양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익도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1.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신임하지 않은 세대는 바로 신임하시기 바랍니다
 - 신임하신 분들은 헌금납부에 협조바랍니다
 - 2. 신자 춘계 가정방문: 4월 1일(수)-9,10반, 2일(목)-12,11반, 3일(금)-13반(오전), 4일(토)-15반(오전), 7일(화)-16,14반, 8일(수)-공소, 9~12일-기타구역 면담
 - ※ 판공성사: 수시로 미사 전후에 보세요
 - 3. 공소미사: 오늘 오후 4시30분
 - 4. 모임: 성심부녀회-3일(금) 어머니미사 후 사목회-다음주일(5일) 공식미사 후 자모회-다음주일(5일) 오후 3시
 - 5. 중등부 신입생 하루 피정: 오늘 오전 9시 미사후
 - 6. 신학생 후원회: 신학생 후원을 위한 모임입니다 접수-사무실, 1구좌-1천원(개인·단체 접수)
 - 7. 지속적인 성체 조배: 끊임없이 조배하십시오
 - 8. 십자가의길 기도: 매주 금요일 미사후 실시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31,950원 교무금: 1,364,500원

- ☆ 병담자없는 부활절: 올 부활절은 모든 신자가 함께 기뻐하는 부활절이 되게 합시다
 - 1. 사목회원 및 제단체 간부 사순절 9일기도: 치명산 일시-4월 6일~15일(일요일 제외) 시간-새벽 4시30분~6시30분
 - 2. 판공 가정방문: 4월 2일-원동(오전)·화전·성덕(오후), 3일-동4구(오후)
 - 3. 판공성사 일정표: 오전 10~12시, 오후 3~6시, 저녁미사 후, 7일-팔복 전지역, 8일-동산 전지역, 10일-농원·성덕·원동·화전·원반월·기타, 11일-학생·미필자 ※ 유인미사-7시30분 성당에서 드림
 - 4. 내동리 판공성사: 14일
 - 5. 생활교리 신설(수녀님 지도): 공식미사 후 예비자-의무적, 관심있으신 신자는 참여바람
 - 6. 본당청소: 금주-중거자의 모후 차주-은총의 어머니
 - 7. 금주 구역미사·모임: 1일-나눔잔치(농원) 3일-미사(원반월)·모임(팔2·4구)
 - 8. 모임안내: 애령회-차주 공식미사 후
 - 9. 금주전례: 해설-초태극, 독서-①유인기 ②문정순 차주전례: 해설-최정진, 독서-①임선홍 ②김정숙
- 지난주 봉헌금: 241,870원(내동18,720원) 교무금: 167,000원 나눔의날 헌금: 35,94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3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1. 금성회·금암회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2. 사목회: 차주 공식미사 후
 - 3. 반장님 교구내 성지순례: 4월 2일 어머니미사후 출발
 - 4. 가정방문: 31일-40·41·42반, 4월 3일-43·44·45·46·47·48반, 4일-49·50·51반, 7일-60·61·62반
 - 5. 부활 판공성사: 4월 11일-초·중·고학생, 13일-1반~25반, 14일-26반~50반, 15일-51반~63반
 - 판공시간: 오후 2시~5시, 7시~9시까지
 - 판공성사표: 미리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 세대주는 부활 합동감사에물 준비해 주세요
 - 6. 병자 판공성사: 4월 13일 오전 10시(사무실에 신청)
 - 7. 가사 신속헌금: 박귀석-5천원, 이경자-1만원, 장쌍순-1만원, 김용택-2만5천원, 백만기-1만원, 박순남-4만원
 - 8. 금주복사: 김명수·김옥기 차주: 이창우·문승욱
 - 9. 금주봉헌: 윤승호 부부 차주: 성원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51,640원 교무금: 1,138,000원 신속헌금: 100,000원

- 1. 아치에스텔사: 4월 5일 공식미사 후 (오늘까지 각 pr 개근·정근 보고)
 - 2. 부활절 행사표: 4월 7·8·9일 3일중 각 세대별로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3. 부녀회: 4일 오전 10시
 - 4. 성모회: 첫주일 공식미사 후
 - 5. 독서실운영 학부모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6. 노인대화: 접수장소·마감일-오늘까지 사무실에 교육시간-매주 토요일 10시~12시, 원서대-1천원 월회비-2천원, 제출서류-입학원서(소정양식) 1부·증명사진 2매·주민등록 1통
 - 7. 푸른솔 웰레회: 4월 5일 공식미사 후
 - 8. 부활절 성가연습: 30일 저녁 7시30분, 참여바람
 - 9. 금주 본당청소: 화-평화의모후, 차월-자비의모후
 - 10. 금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기도-정주복·허옥순 봉헌기도-나병열·조현자 차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기도-최동준·이연복 봉헌기도-유준웅·윤덕남
- 지난주 봉헌금: 439,991원 교무금: 878,2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홍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오늘의 모임·행사: 진복회 월례회-숲정이 새벽미사 베드로회·바울로회 장립중회-저녁미사 후 8시 30~40대 성인 남자들 적극 참여바랍니다 이주일 특별강론-이강호 선교부장님
 - 2. 춘계(부활) 판공성사 안내: 본당-6일부터 11일, 공소-미산리 4일·12일, 전당리-5일·11일(저녁 7시에서 9시), 주일학교-12일, 중·고생-11일(3시~6시)
 - 3. 미사시간 변경: 4월 1일부터, 새벽미사-5시30분, 저녁미사-7시30분(그외는 같음)
 - 4. 금주모임·행사: 요셉회 친교미사(4월 월례회 겸)-31일 오후 3시 오복쌍씨 맥(☎ 3-3428) 성심부녀회 월례회-1일 오전 10시 신자 1일 피정(푸른군대 주관)-2일 오전 10시
 - 5. 부활 성가연습: 금주부터 실시 어머니성가대, 청년성가대 적극 참여바랍니다
 - 6. 예비신자 활동 천호성지 순례: 4월 5일 공식미사 후 출발. 교리반에 나오시는 분 모두 참여바랍니다
 - 7. 송천성전 신속헌금 봉헌에 빠짐없는 정성바랍니다 현재 신속총액-175,150,000원(중·동산 2억원) ※ 추가 신임해 주신 레지오 단원들과 교마운 분들과 특별히 감사(L·M 추가신입-현재 1,350,000원)
 - 8. 금주 본당청소: 공경하을 어머니pr(4일 PM 2시)
- 지난주 봉헌금: 683,770원 교무금: 1,189,000원

- 1. 가정방문: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30일-전원주택 및 단독주택, 4월 1일-인후아파트 6구역, 2일-인후아파트 5구역, 3일-인후아파트 4구역, 4일-오전 9시~12시 인후아파트 3구역
 - 2. 은총의 어머니 구리아치에스텔사: 4일 오후 2시 성당에서
 - 3. 미사때 매일미사책과 성가집을 지참하세요
 - 4. 십자가의길: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 5. 판공성사 준비 성경읽기: 마르코복음 전부
 - 6. 판공성사 교리문제집 가져가세요
 - 7. 복사단 회의시간 변경: 토요일 오후 5시 성당에서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8. 구역장 봉사자 모임: 2일 어머니미사 후
 - 9. 축하합니다: 유정희·박은희·한상은·차금주·허인순·김복순·박정자·김명자·염경자·이철규·최진기·이현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54,270원